

# 80年度 企業經營分析

— 經濟企劃院 —

이 資料는 經濟企劃院의 「81年 經濟白書」에서 第3章 企業經營 및 中小企業부분중 企業經營分析내용을 전제한 것이다. (編輯者註)

## 1. 企業經營狀態

### 가. 成長性

年中 우리나라 企業의 賣出額 및 總資本 등 經營規模伸張勢는 國內景氣의 심한 不況으로 販賣不振이 深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油價 등 主要 原資材價格昂騰에 따른 製品價格의 上昇으로 名目上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業種이 前年水準을 上廻하였다. 그러나 物價上昇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는 前年水準에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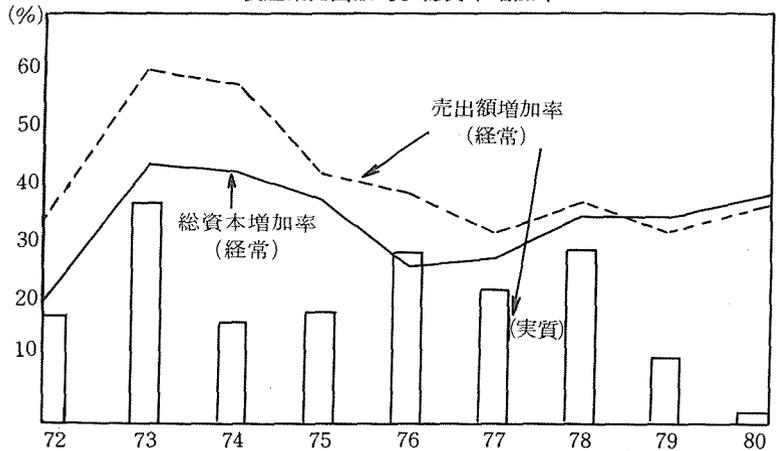
먼저 製造業의 경우를 보면 売出額增加率は 높은 物價上昇을 반영하여 前年の 30.5%에서 37.2%로 다소 높아졌으나 實質基準으로는 前年の 11.4%에서 0.1%로 서크게 낮아져 60年代 이후 처음으로 前年水準에서 停滯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總資本增加率は 長·短期銀行借入金 增加와 換率引上에 따른 負債增加로 前年の 33.2%에서 38.7%로 높아졌다.

이와같이 年中에 經營규모의 伸張勢가 크게 둔화된 것은 海外需要보다는 內需不振에 主因이 있었다. 즉, 國際經濟與件의 惡

化에도 불구하고 商品輸出은 內需不振에 따른 輸出市場개척노력으로 실질기준으로 11.9%增加한 데 반하여 國內需要는 長期間 계속된 경기침체 및 經濟外的 불

안요인에 따른 企業家 투자심리의 萎縮 등으로 민간소비 및 固定投資가 실질기준으로 前年對比 1.1% 및 14.8%나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製造業 売出額 및 總資本增加率



製造業 売出額 및 總資本增加率

(單位: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売出額增加率	經常	59.9	57.2	41.1	38.6	31.6	36.5	30.5	37.2
	實質	37.0	15.4	19.4	27.5	22.8	27.6	11.4	0.1
總資本增加率	43.4	42.3	36.5	27.0	28.3	33.6	33.2	38.7	

註: 製造業 生産額 「디플레이터」를 利用하여 換價.

資料: 韓國銀行.

□ 資料 □

한편 製造業이외의 餘他産業部門을 보면 電氣業이 전력요금의 대폭인상으로, 都小賣·宿泊業이 일부 소비재의 內需好調로, 運輸·倉庫業이 각종 요금인상으로, 賣出額 및 總資本증가율이 前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建設業은 국내건축沈滯에도 불구하고 海外建設이 상대적으로 好調를 보여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한 伸張勢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水産業은 遠洋漁業의 침체현상이 前年보다 더욱 深化됨으로써 賣出額이 16.2%나 減少되었고 不動産·企業用役業 및 「서어비스」業도 不動産業界의 불황 등 전반적인 景氣沈滯로 계속 不振하였다.

나. 收益性

(1) 主要收益性指標의 推移  
 年中 企業의 收益性은 製品販賣不振과 金利, 換率, 油價引上等 原價面의 負擔增大로 前年에 이어 계속 惡化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먼저 製造業의 경우를 보면 企業의 종합적인 經營成果를 표시하는 總資本經常利益率이 前年の 3.4%에서 마이너스 0.2%로 떨어졌으며 製品의 販賣「마진」率을 표시하는 賣出額經常利益率도 前年の 2.7%에서 마이너스 0.2%로 급격히 惡化되는 등 主要收益性指標들이 1960年代 이후 처음으로 赤字經營상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製造業以外的 産業중에서는 鑛業만이 採炭獎勵시책에 따른 石炭價格의 대폭인상 등으로 賣出額經常利益率이 前年の 마이너스 4.1%에서 마이너스 0.6%로 개선되는 등 諸般收益性指標가 호전되었을 뿐 餘他産業의 收益性은 지난해보다 惡化되었다. 특히 水産業은 各國의 漁撈規制措置強化에 따른 漁撈活動不振등

으로 前年보다 赤字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2) 收益性 變動要因

年中 企業의 收益性 變動要因을 賣出額구성면에서 살펴보면 賣出額中 變動費 및 固定費此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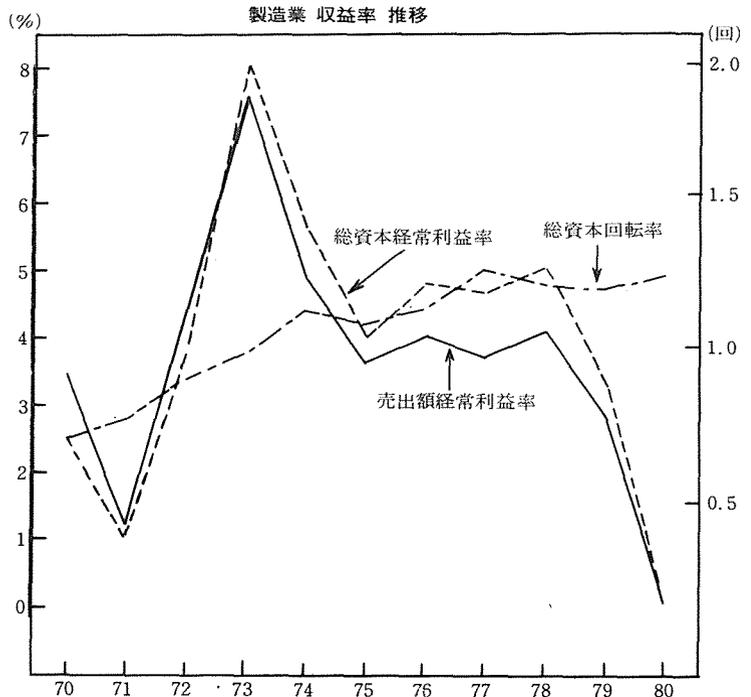
다같이 增大되었다. 즉, 賣出額中 變動費(재료비) 比重은 前年の 63.3%에서 65.8%로 그리고 人件費 金融費用 등의 固定費比重도 前年の 36.3%에서 37.6%로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賣出額經常利益率은 前年の 2.7%에서 마이너

産業別 經營規模의 伸張率

(單位: %)

	売出額增加率		總資本增加率		有形固定資産增加率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水 産 業	5.5	△16.2	19.2	24.9	23.6	17.9
鉍 業	30.8	29.3	26.7	34.3	20.9	25.6
製 造 業	30.5	37.2	33.2	38.7	33.5	27.1
電 氣 業	63.8	66.3	39.0	60.0	40.8	39.5
建 設 業	49.0	44.4	39.4	46.3	20.0	32.8
都小売·宿泊業	40.2	52.7	24.6	45.4	10.5	33.7
運輸·倉庫業	38.9	42.4	24.8	42.3	27.3	29.3
不動産·企業用役業	71.2	19.6	46.8	22.9	64.6	27.4
서 어 비 스 業	28.2	23.7	37.5	25.5	36.4	14.3

資料: 韓國銀行



資料: 韓國銀行

스 0.2%의赤字를 나타내었다.

年中 固定費比重이 增大된 것은 人件費 및 감가상각비 比重이 去年해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金融費用 및 外換差損의 比重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人件費비중은 1975年 以後 勞動 需要의 급증에 따른 높은 賃金上 昇으로 큰 幅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1979年 下半期 以後의 경기침체로 賃金의 上昇勢가 鈍化됨으로써 1980年 中에는 그 比重이 前年의 12.5%에서 10.6%로 떨어졌으며 감가상각비 比重도 企業의 설비투자不振을 반영하여 前年의 3.9%에서 3.5%로 낮아진데 비하여 金融費用 및 外換差損 比重은 金利 및 換率의 대폭인상으로 前年의 6.0% 및 0.1%에서 各各 7.4% 및 2.1%로 크게 增大되었다.

한편 變動費 比重이 年中에 2.5% 상승한 것은 1976年 이후 安定勢를 보여왔던 主要原資材가 格이 1979年 이후 急騰勢를 보인 데다가 그간의 景氣上 昇過程에서 是 原資材 價格上 昇에 따른 原價 負擔을 제품가 格에 轉嫁시킬 수 있었으나, 1979年 이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製品販賣 不振으로 製品價格上 昇이 原資材 價格上 昇을 따르지 못한데 基因하였다.

(3) 收益性의 國際比較

우리나라 企業의 收益性을 主要國의 경우와 比較해보면 1980 年中 賣出額 營業利益率은 7.3% 로서 臺灣의 8.4%(1979) 보다는 다소 낮으나 日本의 5.8% 및 美國의 6.8% 보다는 높은 水準이다. 그러나 賣出額 經常利益率은 마이너스 0.2%로서 臺灣 및 美國은 물론 日本의 경우보다도 훨씬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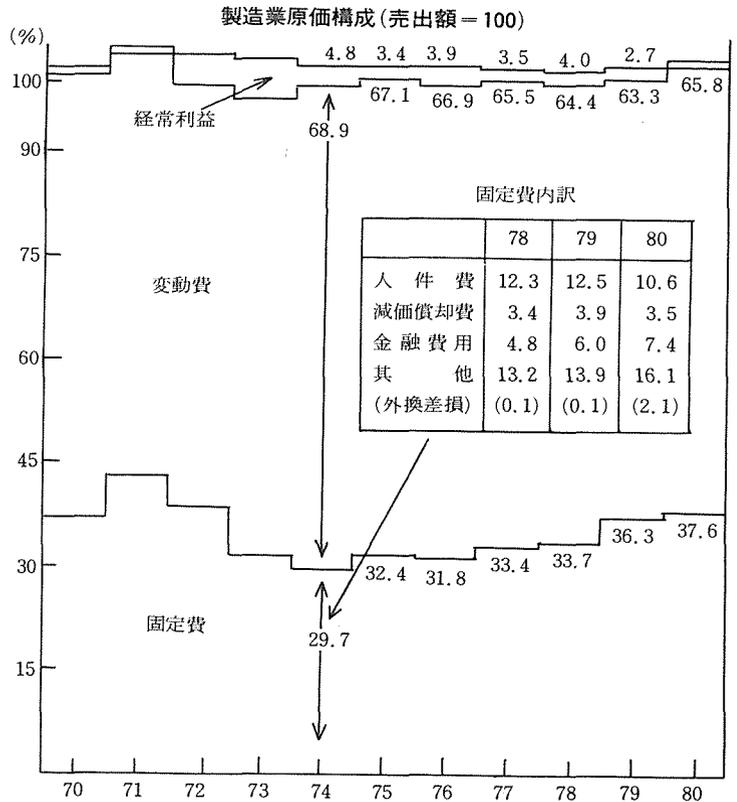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企業이 賣出額 營業利益率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賣出額 經常利益率이 상대적

産業別 收益性

(單位: %)

	總資本經常利益率		自己資本經常利益率		賣出額經常利益率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水 産 業	△1.6	△6.3	343.7	△118.9	△2.0	△9.2
鋁 業	△3.9	△0.6	△16.1	△2.2	△4.1	△0.6
製 造 業	3.4	△0.2	15.6	△1.3	2.7	△0.2
電 氣 業	8.4	6.4	23.7	21.4	19.3	13.5
建 設 業	8.9	5.4	43.5	31.8	5.9	3.8
都 小 売 · 宿 泊 業	3.8	2.4	19.1	15.2	1.3	0.7
運 輸 · 倉 庫 業	3.2	0.6	17.8	3.9	2.8	0.5
不 動 産 · 企 業 用 役 業	6.9	5.3	20.7	17.5	10.3	9.2
서  어  비  스  業	10.4	10.6	40.6	44.0	10.2	10.6

資料: 韓國銀行



資料: 韓國銀行

으로 낮은 것은 우리나라 企業의 경우 金融費用을 中心으로 한 營業外費用의 부담이 餘他國에 비해 훨씬 높은데 基因하고 있다.

또한 總資本回轉率도 우리나라 企業의 固定資產選好傾向을 반영

하여 餘他國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 賣出額 經常 利益率×總資本回轉率로 表示되는 總投下資本의 收益率이 낮아 지는 주요한 要인이 되고 있다.

다. 財務構造

(1) 主要財務指標推移

年中 우리나라 企業은 賣出不振에 따른 在庫累増과 收益性惡化 그리고 資金사정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外部資金의존도의 深化 등으로 自己資本比率 및 流動比率이 낮아지고 固定比率이 높아지는 등 財務構造가 전반적으로 惡化되는 현상을 보였다.

먼저 製造業의 경우를 보면 企業의 장기적 安定性을 나타내는 自己資本比率이 前年의 21.0%에서 17.0%로 낮아진 것을 비롯하여 企業의 短期的 支給能力을 表示하는 流動比率도 前年의 102.2%에서 98.9%로 떨어졌다. 또한 資本의 固定化程度 즉, 自己資本이 固定資産에 어느정도 投下되어 運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固定比率도 前年의 231.0%에서 263.2%로 높아져 企業의 장·단기안정성 關聯指標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推移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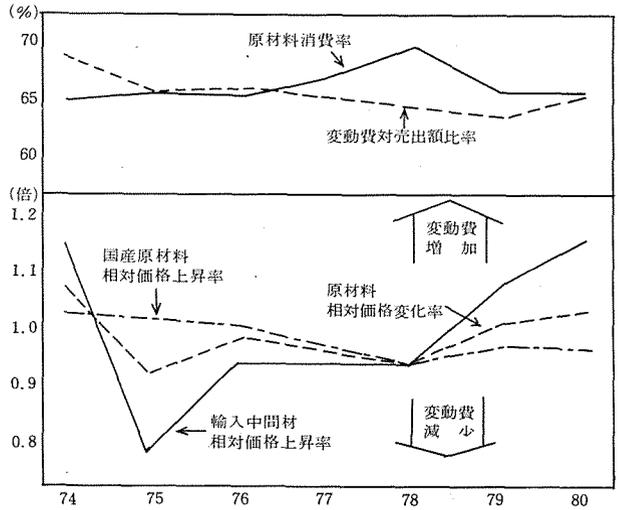
製造業 부문별로는 輸出企業보다는 內需企業이, 中小企業보다는 大企業의 財務構造악화현상이 보다 顯著하였는데 이는 內需企業 및 大企業의 收益性惡化現象이 더욱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製造業以外的 餘他産業의 경우 鑛業은 石炭價引上에 따른 赤字規模의 대폭 축소로, 水産業은 沿近海漁業을 중심으로 한 增資 등에 힘입어 自己資本比率, 流動比率, 등 財務構造가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그 外的 産業은 財務構造가 전반적으로 惡化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建設業 및 運輸·倉庫業의 경우에 보다 顯著하였다.

(2) 投資動向과 資金調達

年中 企業의 實物投資動向을 보면 먼저 固定投資增加率은 景氣의 長期沈滯에 따른 企業家투자심리의 萎縮과 자금사정의 壓迫 등으로 前年보다 크게 不振하였

變動費比重的 增減要因



- 註: 1) 原材料相對價格變化率: 原材料價格上昇率 / 製品價格上昇率  
 2) 輸入中間材相對價格變化率: 中間材輸入價格上昇率 / 製品價格上昇率  
 3) 原材料消費率:  $\frac{\text{原材料投入額} / \text{投入價格指數}}{\text{製品生産額} / \text{製品價格指數}}$   
 (製品價格: 工產品都売物價와 工產品輸出物價를 加重平均)  
 (投入價格: 原材料都売物價와 中間材輸入物價를 加重平均)

資料: 韓國銀行

製造業 收益性的 國際比較

(單位: %, 回)

	韓 国	美 国	日 本	臺 灣	西 独
	1980	1980	1980	1979	1978
売出額 營業利益率	7.3	6.8	5.8	8.4	-
売出額 經常利益率	△0.2	6.4	4.1	5.7	1.5
總資本 經常利益率	△0.2	9.2	5.8	5.7	2.1
金融費用 / 売出額	7.4	-	3.1	3.7	-
總資本 回轉率	1.27	1.44	1.42	1.00	1.39

資料: 韓國銀行

日本大藏省, 法人企業 總計季報 臺灣銀行, 工業財務狀況調查  
 Federal Trade Commission, Quarterly Financial Report  
 Statistisches Bundesamt, Wirtschaft und Statistik

製造業部門別 主要財務比率

(單位: %)

	自己資本比率		流動比率		固定比率		負債比率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製造業	21.0	17.0	102.2	98.9	231.0	263.2	377.1	487.9
輸出企業	19.7	16.8	96.1	95.3	236.6	292.4	406.4	496.1
內需企業	21.5	17.2	105.0	101.0	228.9	243.6	366.0	482.4
重化學工業	23.2	17.9	106.6	100.1	226.5	268.3	331.3	460.0
輕工業	18.2	15.9	97.9	97.6	238.1	255.9	449.1	527.9
大企業	20.9	16.5	100.6	97.0	240.4	280.6	377.5	504.7
中小企業	21.1	20.2	110.3	109.7	173.9	166.9	374.3	394.9

資料: 韓國銀行

고 在庫投資增加率도 1979年中急增한 過剩在庫와 販賣不振에 따른 稼働率低下로 더욱 鈍化되었다. 이와같이 固定投資 및 在庫投資의 增加勢가 다같이 鈍化됨으로써 企業의 總體的인 實物投資增加勢는 前年の 38.2%에서 8.8%로 더욱 낮아졌다.

한편 投資資金의 調達面을 보면 企業收支惡化를 반영하여 自己資金調達額은 前년에 비하여 7.4%가 減少된데 반하여 借入資金 조달액은 前年對比105.7%나 확대됨으로써 固定比率 등 企業의 長期安定性을 나타내는 比率이 악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調達된 資金의 運用面을 보면 上記한 바와 같은 實物投資動向을 반영하여 固定資産에 대한 投資比重 (53.4%→37.5%) 과 在庫資産에 대한 投資比重 (21.0%→16.3%)이 減少한 반면, 製品販賣代金の 回收不振으로 売出債權比重 (13.7%→18.3%)이 현저히 增加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企業의 資金事情惡化와 關聯하여 企業間信用動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企業資金事情을 표시하는 總資本에 대한 現金·預金比重이 감소되는 가운데 買入債務 및 売出債權比重은 前년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買入債務化重은 1979년부터 売出債權比重을 上廻하고 있고 年中에는 이와같은 乖離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資金難克服을 위하여 企業間信用去來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財務構造의 國際比較

우리나라 企業의 財務構造를 美國, 日本, 西獨 등 先進諸國 및 臺灣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먼저 自己資本比率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0년에 17.0%로서 美國의 50.2%(1979), 西獨의 32.3%(1978) 및 臺灣의 38.4%(1979)

産業別 主要財務比率

(單位: %)

	自己資本比率		流動比率		固定比率		負債比率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水産業	△0.1	3.6	74.4	74.9	-	1,435.9	-	2,690.7
鉱業	21.3	27.6	89.5	96.5	243.7	172.2	369.6	262.0
製造業	21.0	17.0	102.2	98.9	231.0	263.2	377.1	487.9
電氣業	33.6	27.9	87.7	83.0	264.7	281.9	197.2	257.9
建設業	20.7	16.0	120.9	108.8	121.5	149.2	383.5	524.9
都小売·宿泊業	18.4	15.0	101.2	101.2	170.4	195.9	442.1	566.3
運輸·倉庫業	18.2	13.7	72.1	82.2	392.4	466.9	449.0	628.4
不動産·企業用役	34.5	32.3	97.1	78.0	211.3	234.1	189.5	209.2
서어비스業	24.3	25.0	100.3	110.3	158.6	110.8	311.0	300.4

資料: 韓國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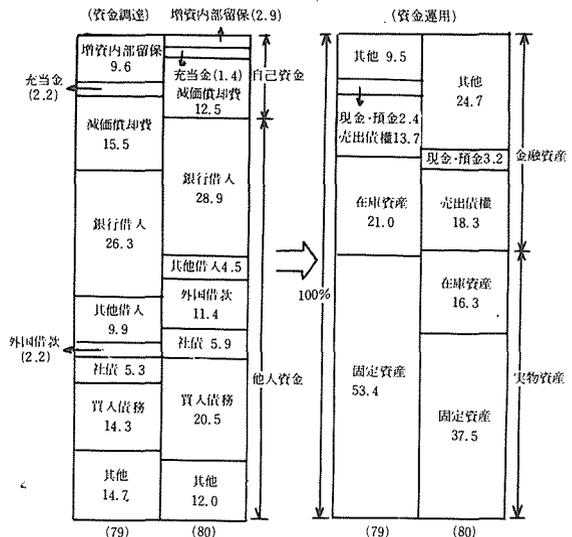
投資動向과 資金調達狀況(製造業)

(單位: 增加率, %)

	1977	1978	1979	1980
實物投資	29.2	53.7	38.2	8.8
固定投資	39.5	45.6	26.2	5.7
在庫投資	10.9	65.0	82.2	16.8
自己資金調達	18.0	37.1	14.3	△7.4
借入에 의한 調達額	38.3	64.4	24.3	105.7

資料: 韓國銀行

資金의 調達과 運用(製造業)



	株式·社債	金融機關借入金	外貨借入金	外資	其他	内部資金
1979	15.0	22.0	16.4	17.2	115.8	23.5
1980	11.9	17.1	14.1	27.3	2.2	25.3

資料: 産業銀行

□ 資料 □

는 물론 從來 우리나라 보다 낮은 水準에 있었던 日本의 21.4% (1980)보다도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企業은 餘他國에 비해 金融費用負擔을 수반하는 借入金依存度가 월등히 높아 資本調達面에서 國際競爭力이 弱화되는 要因이 되고 있다.

한편 資産의 運用面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固定資産의 比重은 44.8%로서 美國의 35.5% (1979), 日本의 34.8% (1980)나 西獨의 38.5% (1978), 臺灣의 40.7% (1979)보다 높은 水準에 있는 反面, 現金·預金, 賣出債權 등 企業間信用比重은 餘他國보다 낮은 水準에 있어 資本運用이 硬直化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라. 生産性

年中 製造業部門의 勞動生産性 동향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從業員數의 減少로 종업원 1人당 勞動裝備總증가율은 前年の 33.7%에서 41.0%로 높아졌으나 稼動率低下로 設備投資效率이 떨어 짐으로써 종업원 1人당 附加價值增加率(勞動生産性)은 前年の 27.2%에서 19.3%로 대폭 鈍化되었다.

製造業이외의 産業에서는 鈷業, 運輸, 倉庫業 및 서어비스業등이 石炭價 및 각종요금의 引上에 따른 賣出額增加를 반영하여 勞動生産性增加率이 前年보다 높아졌으나 그밖의 産業에서는 前年 水準에 미달하였으며 그중 특히 建設業 및 不動産·企業用役은 勞動生産性이 前年보다 오히려 下 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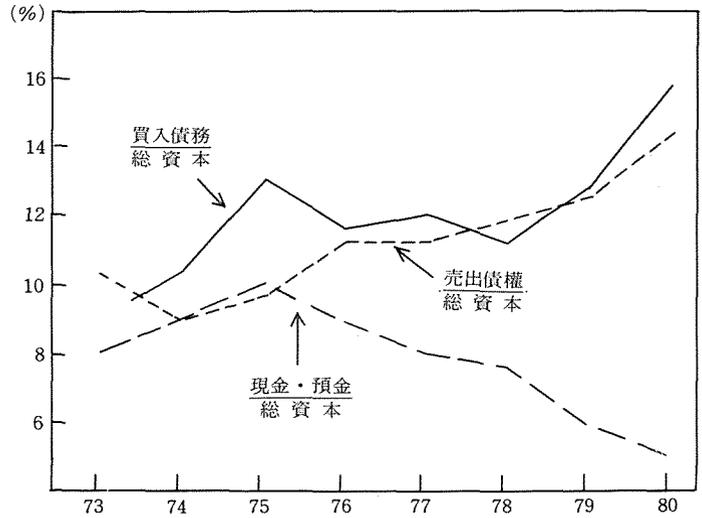
한편 勞動所得分配率은 製造業의 경우 종업원 1人당인건비상승율이 지난해보다 鈍化(25.1% → 20.8%)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勞動生産性上昇率(19.3%)을 小幅이나마 上廻함에 따라 前

年の 50.3%에서 51.0%로 다소 높아졌으나 水産業, 電氣業, 都小 売·宿泊業 등에서는 인건비상승을 鈍化勢가 현저하여 勞動所得 分配率도 다소 低下되었다.

한편 製造業附加價値의 구성내 용을 보면 金融費用 및 減價償却費 등 資本의 項目에 대한 配分比重

은 前年の 35.0%에서 45.4%로 높아진 反面 人件費, 法人稅控除 前純利益, 賃借料 등 所得的項目에 대한 配分比重은 前年보다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金融費用比重이 前年の 19.2%에서 28.7%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데 基因하였다.

企業間信用과 資金事情推移



資料：韓國銀行

財務構造의 國際比較

(單位：總資産에 대한 構成比, %)

	韓 国			美 国	日 本	西 獨
	1978	1979	1980	1979	1980	1978
流 動 資 産	50.3	50.4	51.4	46.2	65.1	61.0
現金·預金	7.8	6.1	5.4	3.6	13.9	10.4
賣出債權	11.7	12.5	14.5	17.3	26.5	26.0
固 定 資 産	47.8	48.4	44.8	35.5	34.8	38.5
流 動 負 債	45.8	49.3	52.0	27.0	57.3	32.6
買入債務	11.2	12.7	15.8	10.1	27.0	-
短期借入金	20.3	22.6	22.5	5.0	16.9	-
固 定 負 債	32.8	29.7	31.0	22.8	22.3	13.1
自 己 資 本	21.4	21.0	17.0	50.2	19.3	32.3
流 動 比 率	109.8	102.2	98.9	171.1	113.7	187.1
固 定 比 率	223.4	231.0	263.2	107.1	180.0	119.0
負 債 比 率	366.8	377.1	487.9	99.1	412.4	209.0
借入金依存度	48.0	48.4	49.3	27.8	35.4	-

資料：韓國銀行

이에 따라, 法人稅控除前純利益 比重은 前年의 11.3%에서 마이 너스 0.8%로 純損失을 記錄하 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1人當부가 가치와 人件費의 변동추이를 日 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970 = 100으로한 指數(製造業部門 GNP 「디플레이터」를 利用하여 實質化) 로 볼 때 日本의 경우는 1976年 이후 人件費上昇率과 勞動생산성 增加率間의 罅이 거의 安定적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 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8年 에 이르기까지 人件費上昇率이 勞動 생산성 增加率을 계속 上廻함으 로써 人件費負擔壓力이 국제 경쟁 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러나 1979年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기침체에 따라 人件 費上昇勢가 둔화됨으로써 인건비 上昇率과 勞動生産性 增加率間의 罅이 安定化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 2. 企業經營의 問題點과 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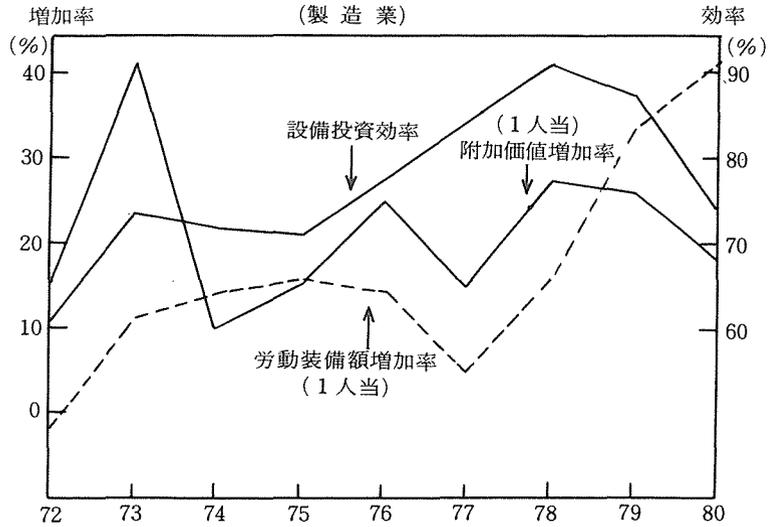
### 가. 問題點

#### (1) 企業經營環境의 惡化

年中 우리나라 企業이 극심한 經營難을 겪게 된 것은 財務構造 의 위약 등 企業內部的 구조적인 문제에도 原因이 있었으나 한편 으로는 國內外的인 企業經營環境 이 惡化된데도 크게 기인하였다.

즉 1980年中에는 第2次석유파 동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된 데다 各國의 需要減退와 保護貿 易主義傾向의 지속 등으로 國際 經濟環境이 불리해졌으며 國內의 으로는 石油類를 비롯한 各種 原 資材價格 및 金利, 換率의 大幅 的인 上昇으로 原價面의 부담이 急增하였고 需要面에서는 물가상 승에 따른 實質購買力減退 및 경

勞動生産性 關聯指標 推移



資料：韓國銀行

産業別生産性

(單位：%)

産業	勞動裝備增加率	設備投資效率	1人當增加率			勞動所得分配率
			附加價值	売出額	人件費	
水産業	(9.1) 38.0	(59.5) 53.5	(5.1) 24.2	(17.9) 24.0	(35.4) 17.2	(59.2) 55.9
鎭業	(36.7) △9.6	(118.8) 186.5	(14.4) 42.0	(34.6) 13.8	(24.0) 27.9	(79.4) 71.6
製造業	(33.7) 41.0	(87.5) 74.0	(27.2) 19.3	(24.3) 44.7	(25.1) 20.8	(50.3) 51.0
電氣業	(23.5) 9.0	(34.6) 39.9	(59.0) 25.5	(49.9) 38.3	(19.6) 15.6	(21.0) 19.4
建設業	(36.4) △2.5	(331.7) 331.5	(37.6) △2.5	(36.6) 2.3	(41.8) 2.4	(67.3) 70.8
都小売·宿泊業	(16.8) 2.9	(129.3) 146.3	(20.7) 16.4	(10.9) 57.0	(27.0) 9.7	(55.3) 52.1
運輸·倉庫業	(△18.8) 33.4	(67.5) 75.0	(△19.9) 48.2	(△4.4) 52.3	(△19.2) 40.1	(56.8) 53.6
不動産·企業用役業	(83.0) 13.3	(35.0) 27.6	(111.6) △10.6	(122.6) △16.4	(77.8) △3.5	(41.0) 44.2
서서비스業	(△17.1) 35.6	(158.6) 170.1	(△16.3) 45.4	(△6.5) 75.5	(△6.7) 41.5	(60.0) 58.7

註註：1) ( )內는 1979年 數值임.

$$2) \text{ 勞動裝備額} = \frac{\text{有形固定資産} - \text{建設仮計定}}{\text{從業員數}}$$

$$\text{設備投資效率} = \frac{\text{附加價值}}{\text{有形固定資産} - \text{建設仮計定}}$$

$$\text{從業員 1人當附加價值} \left( \frac{\text{附加價值}}{\text{從業員數}} \right) = \text{勞動裝備額} \times \text{設備投資效率}$$

資料：韓國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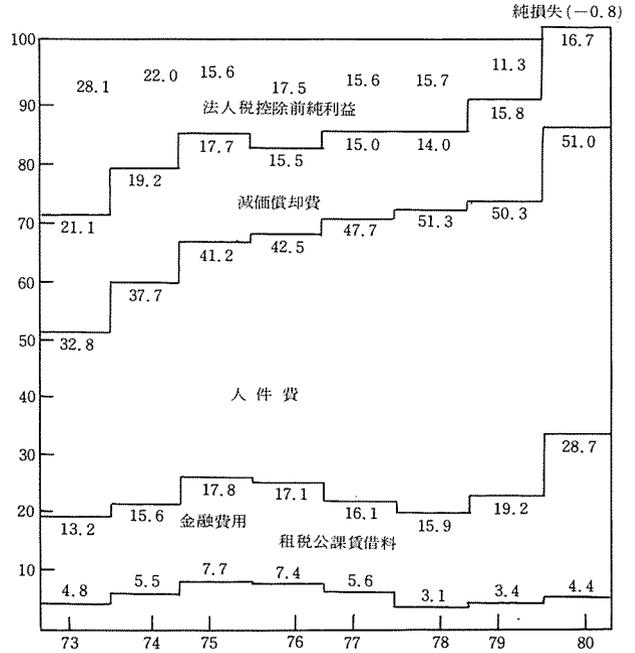
제외적요인 등으로 民間消費 및 投資需要가 激減추세를 보임으로써 企業경영활동을 크게 萎縮시켰다.

(2) 財務構造의 脆弱性

우리나라 企業은 그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量的 성장에 치우친 결과 전반적으로 財務構造가 脆弱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1980年中에는 収益性惡化와 資金事情逼迫에 따른 外部資金借入增大 등으로 企業재무구조는 더욱 惡化되었다. 즉 製造業의 경우 自己資本比率은 불과 17.0%로서 그간 우리나라 財務構造上 최악의 해였던 1971年の 20.2% 보다도 더욱 낮아졌고 固定比率 및 流動比率 등 餘他指標도 크게 惡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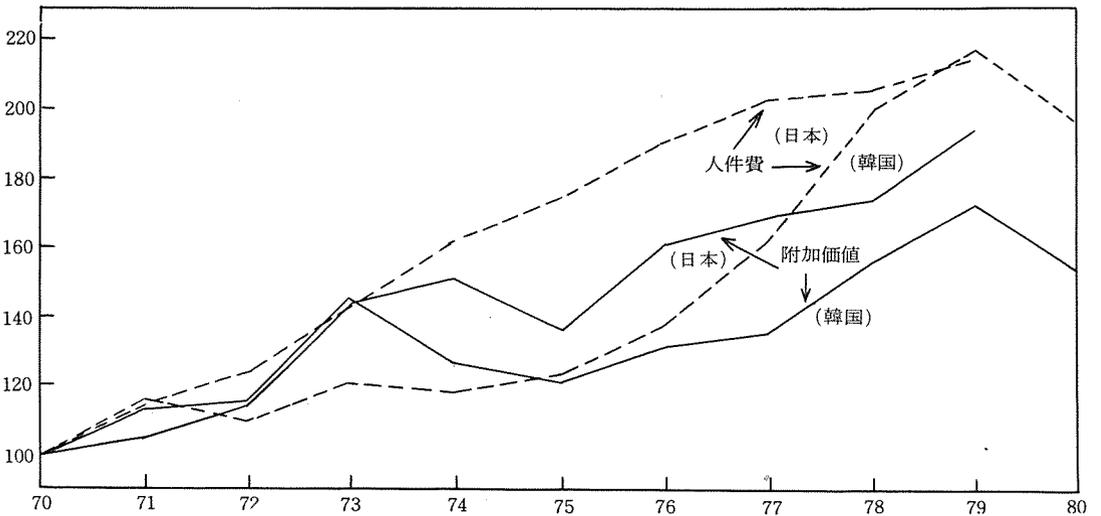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企業은 이와같은 財務構造의 脆弱에 따라 景氣變動 특히 景氣下降局面에 迅速성있게 적응해 나가는 不況抵抗力이 脆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製造業의 附加價值構成



資料 : 韓國銀行

1970=100



註 : GNP 「디플레이터」를 利用하여 實質化한 指數임.

資料 : 韓國銀行

不況抵抗力을 경기국면에 따른 企業의 利益率推移로 보면 우리나라 企業은 景氣下降時에는 收益率이 대폭 下落勢를 보이고 있고 回復局面에서도 收益性改善이 미미한 데 비해 美國 및 西獨은 景氣下降時에 收益率低下現象이 미미하고 景氣上昇에는 신속하게 收益力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日本의 경우는 74~75년의 景氣上昇期에는 收益性악화현상이 뚜렷하였으나 79년 이후 최근에는 收益性이 오히려 다소 호전되는 推移를 보이고 있다.

(3) 社債發行 爲主의 資本市場運營

産業資金調達을 위한 각종 資本市場육성시책에 따라 70年代 이후 資本市場을 통한 資金 調達規模는 급신장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資金調達내용면에서는 최근들어 社債發行에 의한 資金調達比重은 계속 增大되고 있는 반면 株式發行에 의한 資金調達比重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1980年中에는 流通市場의 株價低調로 企業公開에 따른 株式의 公募增資는 단 1個社(3億圓)에 불과하였고, 有價增資도 격감하여 有價增資에 의한 資金調達比重은 前年の 25.2%에서 15.1%로 대폭 減少되었다. 이에 비해 年中에는 企業資金事情壓迫과 有價增資에 의한 資金調達不振 등으로 社債發行이 러시를 이루어 資金調達上的 비중도 前年の 74.2%에서 84.9%로 높아져 社債發行이 發行市場에서 압도적인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이 지나친 社債偏重的인 자본시장의 운영은 企業의 自己資本充實化를 통한 財務構造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나. 對 策

企 業 經 營 環 境

(單位: 增加率, %)

	74	75	78	79	80
民間消費(75년不變)	7.3	6.3	10.3	8.7	△1.1
固定投資(75년 " )	7.3	9.3	39.4	9.7	△14.8
商品輸出(75년 " )	8.7	19.5	14.6	△2.5	11.9
製造業GNP(75년 " )	15.8	12.6	20.7	9.8	△1.2
換 率	21.8	0.0	0.0	0.0	36.3
都 売 物 價	44.6	19.6	12.2	23.8	44.2
(石油類및工製品)	153.7	14.6	3.4	72.6	100.2
(原 資 材)	55.4	16.5	6.7	39.4	51.5

資料: 韓國銀行

우리나라 交易條件 推移

(1975=100)

	1977	1978	1979	1980
輸 出 單 價 指 數	122.3 (9.5)	135.4 (10.7)	161.8 (19.5)	170.3 (5.3)
輸 入 單 價 指 數	100.2 (2.2)	105.8 (5.6)	129.2 (22.1)	163.9 (26.9)
交 易 條 件	122.0	128.0	125.3	103.9

註: 1) 交易條件=輸出單價指數 / 輸入單價指數

2) ( ) 內는 上昇率임.

資料: 韓國銀行

景氣局面과 企業收益率

(單位: %)

	1973 (景氣好況)		1973~1975 (景氣沈滯)		1976~1978 (景氣上昇)		1979~1980 (景氣沈滯)	
	總資本 經常 利益率	売出額 經常 利益率	總資本 經常 利益率	売出額 經常 利益率	總資本 經常 利益率	売出額 經常 利益率	總資本 經常 利益率	売出額 經常 利益率
韓 國	7.9	7.5	4.8	4.9	4.7	3.8	1.6	1.3
日 本	7.1	5.6	3.1	2.4	3.3	2.6	5.9	4.3
美 國	11.6	8.5	10.2	7.6	11.1	8.1	10.3	7.0
西 獨	5.5	2.9	3.1	1.9	5.8	3.8	-	-

資料: 韓國銀行

日本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法人企業統計季報

Federal Trade Commission, Quarterly Financial Report

Statistisches Bundesamt, Wirtschaft und Statistik.

(1) 企業經營與件의 改善

80年中의 심각한 企業經營難은 國內의적인 企業經營條件이 불리 해진데 크게 基因하였던 만큼 앞으로 企業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企業經營環境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79年下半期 이래의 長期

景氣沈滯로 企業家 投資心理가 극도로 위축되었고 消費需要 마저不振한 상태에 있으므로 短期的으로는 投資促進을 위한 各種 稅制金融面의 지원 및 不動產投機抑制措置의 일부 완화 등 適正水準의 景氣浮揚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金利水準이

資本市場의 資金調達実績

(單位: 億圓)

	1977	1978	1979	1980
株 式 公 募	441 (12.2)	415 (6.4)	49 (0.6)	3 (0.0)
上 場 會 社 的 有 價 增 資	1,419 (39.1)	2,852 (43.7)	2,119 (25.2)	1,708 (15.1)
社 債 公 募	1,765 (48.7)	3,264 (49.9)	6,246 (74.2)	9,637 (84.9)
計	3,625 (100.0)	6,531 (100.0)	8,414 (100.0)	11,348 (100.0)

註: 1) 有價增資額中 政府出資는 除外.

2) ( ) 內는 構成比임.

資料: 韓國證券去來所

國際金利수준보다 훨씬 높고 특히 年中에는 과중한 金融費用負擔이 收益性惡化의 主要因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감안, 金利水準을 단계적으로 引下하고 長期的으로 國際金利水準에 접근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 原油를 비롯한 각종 原資材價格의 急騰에 따른 原價面의 負擔增大가 그간의 長期的인 景氣沈滯의 主要原因이 되었다는 점에서 資源의 開發輸入體制의 수립 등 原資材의 長期安定的인 확보를 도모함은 물론 에너지節約型施設의 代替支援 등 産業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노력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간 經濟外的要因에 의해 企業家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급격한 經濟措置를 회피함으로써 長期安定的인 企業經營環境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企業體質強化努力의 持續

우리나라 企業經營上의 근본적인 문제는 財務構造의 취약성에 있으므로 먼저 財務構造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主要財務比率에 대해 年次的으로 달성가능한 目標로서의 일정한 標準比率를 설정하고 未達業體에 대한 金融支援制限을 강화하는 등 金融支援面에서 財務構造改善을 계속 유도하고

둘째, 直接金融調達比重을 높이기 위하여 運轉資金은 金融機關에서 設備資金은 가능한 限 資本市場을 통해 조달토록 유도하며

세째, 企業의 非業務用不動產 売却을 촉진하여 非業務用不動產에 대해 繼續 高率의 空閑地稅를 부과하는 한편 一定時限까지 未処分業體에 대하여는 金融, 稅制面의 制裁措置를 취하고

네째, 81年末 時限의 增資所得 控除制度의 時限 연장, 内部留保 促進을 위한 紙上配當稅制의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技術혁신 및 新製品開發을 통하여 產品의 高級化를 도모하고 生産性向上에 주력함

으로써 國際競爭力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資本市場의 均衡의 育成 圖謀

資本市場의 社債偏重의인 운영을 지양하고 企業의 自己資本 調達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優良企業의 株式公開 적극추진, 會社債發行時 一定比率의 增資義務化制度 도입 및 企業內容 公示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適正株價를 유지할 수 있는 安定的인 市場基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現在 財務部, 証券監督院, 証券去來所 등으로 市場管理体系가 多元化되어 있고 各機關의 權限이 불분명한데 따른 管理業務의 非效率을 제거하기 위해 이의 體系化 내지 調整機能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청탁풍조 배격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